



우상혁(대신대)

1. 들어가는 말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서 율법 낭독 이후 이어진 대중 집회에서 레위 사람에게 의해서 선포된 기도이다(느 8:1-9:5). 유다 백성의 집단 언약 맹세가 이 기도를 뒤따른다(느 10장). 전체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대중 집회 사이에 놓여 있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곧, 아브라함 언약과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삶의 여정과 이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죄로 압축되어 있고, 하나님은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들을 용서하는 분으로 나타난다. 바우치(R. J. Bautch)는 포로기 이후 제2 성전 시대의 기도에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 특징이며 그 시대의 신앙 정

www.kci.go.kr

서를 반영하는 검증 표시는 ‘죄의 고백’이라고 한다.¹⁾ 느헤미야 9장 5b-37절에도 죄의 고백이 여러 번 등장하며 포로기 이후 나타난 기도의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죄의 고백이라는 측면에서만 느헤미야 9장 5b-37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공휼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공휼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당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소망으로 나타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의 연구 경향과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이어서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 다양한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전체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력을 확보하는 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후, 신학적 전제로서 제시된 죄의 고백과 공휼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겠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레위 사람의 기도가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을 반영하는 저항의 기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연구 경향과 접근 방식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흔히 참회기도(penitential prayer)로 분류된다.²⁾ 지금까지 느헤미야 9장을 비롯한 참회 기도에 관한 연구 방법은 크게 ‘양식’과 ‘전승’으로 구분할 수 있다.³⁾ 먼저, 양식적 접근은 참회 기도를 애가 장르의 한 양

1) Richard J. Bautch, *Developments in Genre between Post-Exilic Penitential Prayers and Psalms of Communal Lament* (Leiden: Brill, 2003), 2, 4, 21, 35–36, 110, 171. 바우치에 의하면 시편의 공동체 애가에서 사용되던 ‘죄 고백’ 양식이 포로기 이후 참회 기도에 영향을 주었다.

2) Mark J. Boda, “Praying the Tradition: The Origin and Use of Tradition in Nehemiah 9”, in: *Tyndale Bulletin* 48 (1997), 179–180. 보다는 참회 기도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참회 기도는 금식을 동반한다. 둘째, 비슷한 어휘와 표현 형태, 주제(언약· 땅· 율법)를 공유한다. 셋째, 이러한 회개 기도는 원래 신명기에 기반을 둔 어휘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에스겔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보충한 결과물이다. 넷째, 오경에 있는 율법이나 이야기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시도한다.

3) Mark J. Boda, Daniel K. Falk and Rodney A. Werline, “Defining Penitential Prayer”, in: *Seeking the*

식으로 보면 본문에 대한 설명보다는 본문 뒤에 놓여 있는 제의적 배경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⁴⁾ 참회 기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양식비평이 주도하였다. 두 번째, 전승사적 접근은 기도문의 전통과 역사, 기도의 문자화, 신학적 영향 등에 관심을 보인다.⁵⁾ 양식적 접근이 주어진 본문이 만들어진 삶의 정황에 집중한다면, 전승사적 접근은 본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주로 탐구한다. 참회 기도에 관한 비교적 최근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버린(Rodney A. Werline)⁶⁾과 보다(Mark J. Boda)⁷⁾의 연구는 양식적 접근이 아니라 전승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세 번째로 기도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성경이 전하는 내러티브 안에서 스피치의 역할과 의미를 따지는 연구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기도의 내부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두 방법과 구분된다. 기도문을 하나의 스피치로 보고 이야기 안에서 기도의 역할과 기능을 살피는 것이다.⁸⁾ 이러한 접근은 기도문이 놓여 있는 본문 전체 가령, 느헤미야서 전체를 하

Favor of God vol.1: The Origins of Penitential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Atlanta: SBL, 2006), xiii.

- 4) Rodney A. Werline, *Penitential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The Development of a Religious Institution* (Atlanta: Scholars Press, 1998), 4. 버린이 조사한 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많은 학자들 (Mowinckel, von Rad, Alt, Mendenhall, Baltzer, Steck, Lipinski)이 참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깨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언약갱신의식 때 사용된 것으로 본다. Rodney A. Werline, *윗글* (1998), 5. 느 9:5b-37절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10장이 언약갱신을 위한 다짐과 명단이 나오기에 느 9:5b-37 역시 언약갱신의식을 위한 것이다.
- 5) Eileen Schuller, "Penitential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a Research Survey," *Seeking The Favor of God volume 2: The Development of Penitential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Atlanta: SBL, 2007), 2. 슐러는 제2 성전 시대 참회 기도에 관해 연구사를 정리하였다.
- 6) Rodney A. Werline, *윗글* (1998), 2. 버린은 구약 정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외경까지, 참회 기도의 발전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참조, Leon J. Liebreich, "The Impact of Nehemiah 9:5-37 on the Liturgy of the Synagogue", *HUCA* 32 (1961), 227-237. 리브라이히는 느 9: 5b-37절이 회당 의전 (liturgy)에 미친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 7) Mark J. Boda, *Praying the Tradition* (Berlin: de Gruyter, 1999), 1, 195. 보다는 그의 책에서 느헤미야 9장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려고 한다. 첫째는 기도문을 작성자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둘째는 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오경과 유사한 본문을 가진 오경에 의존했다고 하며, 이들이 전해지는 경전의 활용 방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느헤미야 9장은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오경과 사사기, 신명기 역사서와 매우 비슷한 형태의 책들을 참조하였던 것으로 보다는 본다. 스가랴 1:1-6; 7:1-8은 느헤미야 9장의 간청(32-37절) 부분과 접촉점이 있다고 보다는 제안한다.
- 8) Mark J. Boda, "Prayer as Rhetoric in the Book of Nehemiah", Isaac Kalimi (ed.), *New Perspectives on*

나의 이야기로 보고 그 안에서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살핀다. 네 번째는 본 논문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느헤미야 9장을 역사적 기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역사적 기도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도를 말한다. 이런 기도는 오경이나 역사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인용·암시하며, 설명·해석을 추가하기도 한다.⁹⁾ 보다에 의하면, 참회 기도를 연구한 거의 모든 학자가 공통으로 참회 기도로 분류하고 그 예로 제시하는 기도로는 "에스라 9장과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등이 있다.¹⁰⁾ 비록 내용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에스라 9장과 느헤미야 1장, 다니엘 9장의 기도와 구성 방식이 다르다.¹¹⁾ 오히려 시편 78, 105, 106, 135, 136과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¹²⁾ 역사적 기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텍스트 간의 상호 관계(intertextuality)' 측면에서 많이 다뤄졌다.¹³⁾ 펜샴(F. C. Fensham)은

Ezra-Nehemiah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267–287.

- 9) 앞서 언급한 '전통'적 접근과 공통점이 있다.
- 10) Boda, *윳글* (1999), 198–202.
- 11) 느헤미야 9장의 기도가 시문이나 산문이나의 논의는 있었다. 학자들은 대개 느 9:5b–37을 시문과 산문의 경계에 있다고 한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산문과 시문의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도 고려해야 한다. 참조, Richard J. Bautch, *윳글* (2003), 109, 각주 20.
- 12) F. C. Fensham,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Grand Rapids: Eerdmans, 1982), 228; "Neh 9 and Pss 105, 106, 135 and 136: Post-exilic historical Traditions in Poetic Form", *JNSL* 9 (1981), 35–51. 펜샴은 느 9과 시 105, 106, 135, 136을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역사적 기도'로 분류한다. M. Oeming, "See, We Are Serving Today(Nehemiah 9:36): Nehemiah 9 as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Persian Period", O. Lipschits and M. Oeming(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574. 왜밍은 느헤미야 9장과 시편 78, 105, 106, 138이 비슷하다고 한다. 왜밍의 분류 가운데 시편 138은 잘못된 분류 아니면, 시편 136의 오타로 보인다. 왜밍은 이런 기도를 서로 비교하지 않고, 단지 본문만 제시한다. A. Curtius, "La mosaïque de l'histoire d'Israël: quelques considérations sur les allusions 'historiques' dans les Psaumes", D. Marguerat et A. Curtis (eds.), *Intertextualité: La bible en échos* (Genève: Labor et Fides, 2000), 22. 쿠르티스는 시편 중에서 78, 105, 106, 136을 '역사적 시편'이라고 분류하는 데 동의한다. 라몽은 시 78, 81, 95, 114, 105, 106, 135, 136을 중심으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폈다. S. Ramond, *Leçons et les énigmes du passé: une exégèse intra-biblique des Psaumes* (Berlin: de Gruyter, 2014).
- 13) N. Sarna, "Psalm 89: A Study in a Inner Biblical Exegesis", A. Altmann(ed.), *Biblical and other Stud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29–46;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D. Mathias, *Die Geschichtstheologie der*

느헤미야 9장을 역사적 기도로 접근하였지만,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시편의 다른 역사적 기도와와의 비교에 비중을 두었다.¹⁴⁾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기도리는 사실에 근거하여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내부 구성 방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 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문의 형성 과정이나 본문이 놓여 있었던 제의적 배경보다는 정경으로 확정된 최종 본문의 구조와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의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양식/전승이라는 주류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기도의 내부 구조와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안에서 기도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는 접근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3. 구조와 의미: 구성단위 · 응집과 통일 · 죄와 긍휼 · 저항

1) 구성단위: 역사와 해석

역사적 기도는 여러 개의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를 연결하여 만들어진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찬양/창조 사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사건, 광야 이야기, 가나안 정복과 페르시아로 끝난다.¹⁵⁾ 앞서 언급한 개별 사건이나 특정 시대는 느헤미야 9장 5b-37절을 만드는 구성단위(module)이다.¹⁶⁾ 역사적 사건을 내용으로 가진 여러 개의 구성단위가 모여 한 편의 기도가

Geschichtssumarien in den Psalmen, (Frankfurt: Lang, 1993); A. Curtius, 윗글 (2000), 13-29; B.M. Levinson, *L'herméneutique de l'innovation: Canon et exégèse dans l'Israël biblique*, (Bruxelles: Lessius, 2006); J. Gärtner, *Die Geschichtspsalmen: Eine Studie zu den Psalmen 78, 105, 106, 135 und 136 als hermeneutische Schlüsseltexte im Psalter* (Tübingen: Mohr Siebeck 2012); S. Ramond, *Leçons et les énigmes du passé: une exégèse intra-biblique des psaumes* (Berlin: de Gruyter, 2014).

14) F.C. Fensham, 윗글 (1981), 35-51.

15) 보다 89-185 역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찬양(5c-d) - 창조(6) - 아브라함(7-8) - 출애굽(9-11) - 광야(12-23) - 땅(24-31) - 간청 · 고백(32-37)]. 보다는 개별 구성단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심을 둔다. Boda, 윗글 (1999), 89-185. 펜삼은 [창조(6) - 족장과 언약(7-8) - 홍해(9-11) - 광야(12, 15-21) - 시나이(13-14) - 약속의 땅 차지(22-25) - 사사 시대(26-29)]로 나눈다. 펜삼, 윗글 (1981), 40. 펜삼은 느헤미야 9장과 시편의 다른 역사적 기도를 비교하는 데 집중한다.

16) 다니엘 9장에는 율법과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성단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다. 느헤미야 1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되었다.¹⁷⁾ 각각의 구성단위는 독립된 의미 덩어리이다. 즉, 구성단위는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써 중요성과 역할이 있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구성 내용은 대략 6개의 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찬양/창조	아브라함	출애굽	광야	가나안	페르시아
5b-6절	7-8절	9-11절	12-21절	22-31절	32-37절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구성단위는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따라 연대기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¹⁸⁾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구성단위에서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모든 구성단위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구체적 사건을 다루기에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느헤미야 9장의 기도를 역사적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구성단위는 고백적이다.¹⁹⁾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기에 고백적이다. 역사를 고백적 언어로 풀어쓴 것이다. 가령, 출애굽 구성단위(9-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 받을 때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이들을 구원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
- 17) 느헤미야 9장 5b-37절과 유사한 다른 역사적 기도의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시편 78 = [율법(1-11) + 출애굽(12-13) + 광야(14-42) + 가나안(54-66) + 유다 · 시온 · 다윗(67-72)], 시편 105 = [찬양(1-4) - 아브라함 언약(5-11) - 나그네(12-16) - 요셉(17-23) - 출애굽(24-43) - 아브라함 언약(42, 44) - 율법(45)], 시편 106 = [찬양(1-5) - 출애굽(6-13) - 광야(14-33) - 가나안(34-46) - 찬양(47-48)], 시편 135 = [찬양/창조(1-7) - 출애굽(8-9) - 가나안(10-12) - 찬양(13-21)], 시편 136 = [찬양/창조(1-9) - 출애굽(10-15) - 광야(16-20) - 가나안(21-25) - 찬양(26)]. 비록 기도는 아니지만 위 기도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 연설/고백문이 다음과 같이 있다. 여호수아 24 = [아브라함(2-4) - 출애굽(5-7a) - 광야(7b) - 가나안(8-13) - 언약(14-15/27)], 예스겔 20 = [출애굽(5-9) - 광야(10-26) - 가나안(28-32) - 포로 귀환(33-44)], 예레미야 32 = [찬양/창조(17-19) - 출애굽(20-21) - 가나안 (22-23) - 예루살렘(24-25)].
- 18) 구성단위는 연대기 순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연대기적 순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가령, 13-14절의 시내 산 율법 수여는 출애굽기 19-24장에 놓여 있다. 반면, 15절의 양식과 반식의 물 사건은 출애굽기 16-17장에 있다. 출애굽기에서는 율법 수여가 양식과 반식의 물보다 뒤에 나오지만, 느헤미야 9장에서는 율법 수여가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구성단위 간의 연대기 순서의 문제는 아니다.
- 19) 버린은 참회기도의 일반적 특징을 소개하며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역사를 나열하는 기도문도 몇 있다”고 한다. Rodney A. Werline, *윳글* (2006), xvi.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이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각각의 구성단위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구성단위는 각각 다른 역사적 사건과 시대를 다루지만, 그 사건과 시대의 해석은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주제와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여러 개의 구성단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연결 관계는 단순히 연대기 순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개별 구성단위 간의 연결 관계를 살피는 일은 그 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도 내용의 배열은 전체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밑에서 살펴볼게 될 '땅'이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구성단위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2) 응집과 통일: 땅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아브라함 이후 전개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땅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땅(6, 8절)으로 시작하여 땅(35-37절)으로 마무리된다. 기도의 처음과 끝이 땅일 뿐 아니라 기도의 전개 역시 땅을 매개로 한다.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אֲרֶץ(에레쯔/땅)'는 느헤미야 서에서 총 20번 나타나며, 이 가운데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만 14번(6, 8, 10, 15, 22tris, 23, 24bis, 30, 35, 36절) 쓰였다. '에레쯔'의 빈도수만 보아도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 땅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에레쯔'의 쓰임새는 다음과 같다. 창조 구성단위(6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아브라함 구성단위(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내용으로서, 출애굽기 구성단위(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 곧 재앙을 내린 파라오의 땅으로서, 광야 구성단위(15절)에서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 나타난다. 가나안 구성단위(22-31절)에서는 여러 번 등장한다.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다고 하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차지하라고 한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하며, 24절에서는 ‘에레쯔’가 두 번 쓰이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 다른 한 번은 가나안 주민의 땅을 말할 때, 30절에서는 이방 백성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페르시아 구성단위(32-37절)에서는 두 번 나타난다. 3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린 땅을 언급하기 위하여, 3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다가 종이 된 상황을 말할 때 땅이 쓰인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에는 세 종류의 땅이 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6절).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8, 15, 22, 23, 24절). 셋째, 하나님이 치신 바로의 땅(10절)과 이방 민족의 땅(30절)이다. 첫째는 둘째와 셋째를 아우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이방 민족의 땅과 대조를 이룬다. 이 기도문에서 땅은 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 있다. 8절은 약속한 땅, 15절은 맹세한 땅, 22절은 차지한 땅, 23절은 차지한 땅으로 인도, 24절은 차지한 땅, 35절은 차지한 땅에서 복을 누리, 36절은 복을 누리던 땅에서 종이 된 상황을 소개한다. 아브라함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핵심은 명확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여 복을 누리다가 그 땅에서 종이 되었음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면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땅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구성적 측면에서 땅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연결하는 이음쇠의 역할을 한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에 있는 각각의 구성단위는 땅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응집력을 확보한다. 둘째, 땅은 느헤미야 9장 5b-37절이 상징하는 사건과 시대의 공간적 배경으로 쓰여서, 구성단위 전체에 주제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²⁰⁾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땅과 관련하여 그 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6절). 다른 기도문의 찬양 구성단위에서 항상 천지 창조를 말하지는 않는다.²¹⁾ 6절의 천지 창조는 기도문 전체 흐름

20) 역사적 사건을 구성단위로 이뤄진 기도/고백문에서 땅이 중심이 되어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는 경우는 겔 20:5-44에서도 볼 수 있다.

21) 시편 105편과 106편의 찬양 구성단위에서는 창조를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시편 136편과 예레미야 32장의

과 맥을 같이 하기에 의도 있고 의미 있는 선택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비롯한 여러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언급한다(8절). 셋째, 하나님께서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킨다(15절). 넷째, 주기로 맹세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룬다(22-24절). 다섯째,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린다(35절). 여섯째, 하나님께서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종이 되었다고 한다(36절).

찬양/창조	아브라함	광야	가나안	가나안	페르시아
천지 창조	땅을 약속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	땅을 정복	차지한 땅에서 복을 누리	차지한 땅에서 종이 됨

땅의 약속에서부터 차지한 땅에서 삶까지를 진술한다. 주목해야 할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마지막 부분이다(36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기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어야 함에도 종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소산을 얻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 왕들이 그 땅의 소산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었다고 한다.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땅에서 잘 살다가 오히려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반전이 있다. 그 반전의 공간적 배경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잘 살았지만, 지금은 그 땅에서 종이 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벗어나려는 희망이 암시되어 있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땅의 관점에서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는 간청이 함축되어 있다. 간

찬양 구성단위에서는 창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칭의 내용은 [죄와 긍휼]이라는 신학적 해석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3) 죄와 긍휼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역사를 해석하는 신학이 어우러져 있다.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 언급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정복 후 정착 생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은 역사이다. 느헤미야 9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면서 사건 각각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 곧 신학을 가미한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도를 구성하는 뼈대 역할을 한다면, 신학은 뼈대에 붙어 있는 살과 피와 같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신학은 죄와 긍휼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명령 거부(16-17절)와 율법 거부(26절), 악(28절), 계명 거부(29절), 불순종(33-35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긍휼 역시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 반복적(17, 19, 27, 28, 31절)으로 나타나며, 긍휼은 죄와 짝을 이루어 역사를 해석하는 틀로 작동하고 있다. 긍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רַחֵם(라훔/긍휼)²²⁾과 ‘רַחֲמֵי(라하밌/긍휼)’은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느헤미야 9장 5b-37절에 집중되어 있다.²³⁾ 특히 광야(12-21절) 구성단위와 가나안(22-31절) 구성단위에 몰려 있다.²⁴⁾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설정된 것이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죄와 긍휼의 관계로 엮여 있으며, 죄와 긍휼은 짝을 이루어 [광야(12-21절)]에서부터 [가나안(22-31절)]까지 반복

22) 구약에서 '라훔'은 13번(출 34:6; 신 4:31; 느 9:17, 31; 율 2:13; 온 4:2; 시 78:38; 86:15; 103:8; 111:4; 112:4; 145:8; 대하 30:9) 등장한다. 느헤미야 9장에서 2번 등장한다. '라하밌'은 시편 11번, 느헤미야에서는 5번(느 1:11; 9:19, 27, 28, 31), 이사야 4번, 다니엘 3번 등이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4번 나타난다.

23) '라훔'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개인)을 하나님께서 감싸주고 용서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예. 출 34:6; 신 4:31; 율 2:13; 온 4:2; 시 78:38; 103:8; 대하 30:9. '라훔'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상황과 관련된 때도 있다. 신 4:31과 대하 30:9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에 흩어진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구체화한 모습이다.

24) 출애굽기(9-11절) 구성단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직접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행한 이적과 기사(10-11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죄/공홀 주기는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 모두 5번 등장한다. 죄/공홀 유형은 느헤미야 9장 5b-37절뿐만 아니라 시편의 역사적 기도에서도 볼 수 있다. 라몽(S. Ramond)에 의하면 시편 105, 114, 136편은 하나님의 공홀을 강조하며, 시편 95, 106, 135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두드러져 있다.²⁵⁾ 느헤미야 9장에서는 공홀에 무게 중심이 있다. 느헤미야 9장의 광야 구성단위에 있는 죄/공홀 주기부터 살펴보자.

(1) 광야: 공홀1=느 9:12-17, 공홀2=느 9:18-21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 12-21절은 광야 이야기로 되어 있다. 광야 이야기는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 하나의 독립된 구성단위를 이루며, 그 내용에 있어 두 부분 12-17절과 18-21절로 나뉜다.²⁶⁾ 12-17절과 18-21절은 모두 공홀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12-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었음에도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세우고 우두머리를 세워 중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 하였지만,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한 하나님께서 공홀을 베풀어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17b절). 광야 구성단위에서 첫 번째 죄/공홀 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 따라서 12-17절의 의미 구조는 [하나님의 은혜(12-15) - 불순종(16-17a절) - 공홀(17b절)]로 되어 있다. 18-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공홀’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18-21절 역시 [불순종(18절) - 공홀(19-21절)]로 요약된다. 이 두 구절은 광야 이야기 안에 있기에 서로 연결하면 [은혜 -

25) S. Ramond, *유클* (2014), 276-278. 이스라엘 역사를 죄와 공홀로 해석하는 역사적 기도의 이러한 시각은 느 9:5b-37 이전 혹은 동시대에 유행하는 신학적 틀이었음을 말한다.

26) 윌리엄스는 광야 구성단위를 세 부분 [하나님의 도움(12-15b) - 백성의 반란(16-18) - 하나님의 계속적 도움(19-21)]으로 구분한다.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aco: Word Books, 1985), 313-314. 보다는 [하나님의 도움(12-15a) - 백성의 반란(16-19a) - 하나님의 계속적 도움(19b-23b)]으로 나눈다. Boda, *유클* (1999), 79. 윌리엄스와 보다 모두 큰 틀에서는 죄와 공홀이라는 관점에서 광야 구성단위를 분석하지만, 이들은 죄/공홀 주기를 섬세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가령, 윌리엄스와 보다에 의하면 17절의 공홀은 ‘백성의 반란’에 들어가 있다. 이는 이들이 죄/공홀 주기를 광야 구성단위의 중심축으로 보지 않았음을 말한다.

불순종 - 공홀1 - 불순종 - 공홀2로 된다. 12-17절과 18-21절의 불순종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다. 12-17절과 18-21절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공홀이 나타나는 [불순종 - 공홀] 구조가 된다. 광야 이야기(12-21절)는 두 개의 공홀 주기를 가지고 있다.

(2) 가나안: 공홀3=느 9:22-27, 공홀4=느 9:28, 공홀5=느 9:29-31

광야 구성단위의 12-17절과 18-21절에 있던 [불순종 - 공홀] 구도를 가나안 구성단위(22-31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거부하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홀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22-31절에서는 [불순종 - 공홀] 주기가 세 번(22-27, 28, 29-31절) 나타난다. 가나안 구성단위의 첫 번째 공홀 주기(22-27절)는 광야 구성단위처럼 하나님의 은혜(22-25절)로 시작한다. 위 세 개의 공홀 주기는 광야의 [불순종 - 공홀]에 없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추가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대적·원수·열방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가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22-27, 28, 29-31절은 [불순종 - 징벌 - 공홀]의 구도가 된다.²⁷⁾ 이 가운데 25-27절과 28절은 ‘징벌’과 ‘공홀’ 사이에 ‘부르짖음/들음’이라는 것이 놓여 있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연결하면 22-27절과 28절은 [은혜 - 불순종 - 징벌 - 부르짖음/들음 - 공홀3 - 불순종 - 징벌 - 부르짖음/들음 - 공홀4 - 불순종 - 징벌 - 공홀5]로 되어 있다.²⁸⁾ 가장 단순한 [불순종-

27) 시편 106 역시 이와 비슷하게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구원, 곧 다음과 같다. [불순종: 6-7] + [구원: 8, 10] + [불순종: 13-16] + [하나님의 분노: 17-18] + [불순종: 19-21, 24-25, 28] + [하나님의 분노: 29, 32] + [불순종: 34-39] + [하나님의 분노: 40-42] + [구원: 43-47]

28) 버린은 신명기 4장과 30장에 있는 [죄-징벌-부르짖음-공홀]이 에스라·느헤미야의 참회기도로 발전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열왕기상 8장의 기도가 전환기적 역할을 했다고 버린은 주장한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간청한다. Werline, 윗글(1998), 7, 28, 191-192. 버린은 신명기 4장과 30장이 포로기에서부터 쿨란 공동체에 이르는 참회기도 전통의 토대 본문이었다고 본다. Werline, 윗글 (1998), 191. 보다는 주석가들이 [축복 - 불순종 - 심판 - 공홀 - 구원]의 도식은 신명기 학파

공홀이 기본형이라면, 22-27절과 28절, 29-31절은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장형은 두 종류가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형: [불순종-공홀] 12-17절(광야), 18-21절(광야)

확장형1: [불순종-징벌-공홀] 29-31절(가나안)

확장형2: [불순종-징벌-부르짖음/들음-공홀] 22-27절(가나안), 28절(가나안)

느헤미야 9장 5b-37절에는 광야 구성단위(15-17절, 18-21절)에서 2개, 가나안 구성단위(25-27절, 28절, 29-31절)에서 3개, 총 5개의 공홀 주기가 있다. 위에 언급된 대로 죄/공홀 주기는 세 가지(기본형 · 확장형1 · 확장형2) 유형이 있다. 5개의 공홀 주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공홀을 베풀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개의 공홀 주기는 모두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적용되어 있다. 하지만 공홀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소망으로 나타난다. 이를 32-37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페르시아: 32-37절

페르시아 구성단위를 이루는 32-37절에는 반쪽짜리 공홀 주기가 나타난다.²⁹⁾ 왜 반쪽짜리인가? 다른 공홀 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순종’과 ‘징벌’은 있는데, ‘공홀’이 없기 때문이다. 34-35절에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한다. 불순종이다. 이는 다른 공홀 주기에 공통으로 나타난다(16-17, 18, 26, 28, 29절). 불순종에 이어서 하나님의 징벌도 나타난다(36-37a절). 25-27절과 28절, 29-31절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대적 · 원수 · 열방으로 나타났다면, 32-37절에서는 ‘왕들이’ 하나님의

에 속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Boda, 윗글 (1999) 81, 각주20. 느헤미야 9장의 죄에 관하여 다음 글을 참조하라.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59집 (2016 3월), 147.

29) 보다는 느 9:32-27이 하나님의 공홀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다는 그 공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Boda, 윗글 (1999), 81.

징별로 등장한다(37절). 공홀 주기에서 32-37절의 ‘왕들’ 역할은 25-31절의 대적·원수·열방과 다르지 않다. 32-37절은 [불순종-징벌]이 있기에 확장형1이나 확장형2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2-37절의 [불순종-징벌]이라는 반쪽 공홀 주기를 푸는 열쇠는 12-31절과 32-37절의 시간적 차이이다. 광야·가나안 구성단위인 12-31절이 과거의 일이라면, 32-3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당면한 일이다.³⁰⁾ 32절은 ‘הַיּוֹמָהּ(브아타/지금)’로 시작한다. 32-37절의 모든 내용을 시간으로 묶어주는 표시이다. 12-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이 공홀을 베풀었다고 과거의 일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반면, 32-3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여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한다.³¹⁾ 지금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공홀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³²⁾ 12-31절의 공홀 주기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푼 공홀을 명시한다면, 32-37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공홀을 베풀 것으로 기대하는 암시가 있다. 이러한 암시는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32절)”라는 간청과 연결되어, 그 암시의 내용이 공홀임을 분명히 말한다.³³⁾

32절은 “앗수르 왕들 때부터 오늘까지”로 끝난다. 느헤미야 9장 5b-37절 기도문이 선포된 시점인 ‘오늘’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환난’은 페르시아의 지배로

30) 윌리엄스(H. G. M. Williamson, “Structure and Historiography in Nehemiah 9”, *Studies in Persian Period History and Historiography*, 2010, 288)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진 것으로 설명한다. 즉 27절보다 28절, 28절 보다 30절이 보다 강한 징벌로 본다. 윌리엄스에 의하면 30절의 심판은 바벨론에 유다가 넘어간 상황을 반영한다.

31) 윌리엄스는 29-31절에서는 26-27절·28절과 달리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도움이 뒤따라오는 32-37절의 주제라고 한다. H. G. M. Williamson, “Structure and Historiography in Nehemiah 9”, *Studies in Persian Period History and Historiography* (Eugene, Wipf and Stock, 2010 reprinted; Mohr Siebeck, 2004), 288.

32)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겼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공홀을 베풀었다고 한다. 28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공홀을 베풀었다고 한다. 29-31절에서는 교만하며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사람에게 넘기셨지만 공홀을 베풀어 아주 멀하지 않았다고 한다.

33) 배정훈은 다니엘 9장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홀에 의지하여 회복을 바라는 기도라고 한다. 배정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 연구”,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127.

인해서 겪는 현재의 고통을 포함한다.³⁴⁾ 36-37절에서는 ‘우리가 종이 되었고 왕들 때문에 곤란이 심하다’라고 한다.³⁵⁾ 유다 사람은 페르시아와 비교하여 자신들을 ‘중’으로 여겼고,³⁶⁾ 36-37절의 왕들은 페르시아 왕을 가리킨다.³⁷⁾ 37절에서 페르시아 왕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냥 ‘왕들’이라고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에스라 9장의 기도와 비교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페르시아 왕을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에스라 9장은 ‘페르시아’ 왕이라는 표현을 주저 없이 쓴다(스 9:9). 반면, 페르시아 왕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느헤미야 9:37은 그냥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³⁸⁾

37절에서는 ‘왕들’ 때문에 **הַמֶּלֶךְ** (짜라/곤란)가 심하다고 한다. 27절에서는 ‘짜라’가 대적에게 당하는 고통을 가리킨다. 25-37절에서 보여주는 공황 주기의 논리 안에서 볼 때, 27절과 37절의 ‘대적’과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27절의 ‘짜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공황을 베풀어 해결하였다면, 37절에서는 지금 현재 당하는 ‘짜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이 공황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³⁹⁾ 결국,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페

34) 느헤미야서에는 간접적으로라도 페르시아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다. 느 5:4에 의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일반 백성은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느 6: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다의 왕’은 당시 금기어이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유다에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반역 행위이기 때문이다.

35) 왜밍(M. Oeming)은 느 9:32-37에 대해서 기존의 견해와 다른 주장을 한다. 왜밍에 의하면 느 9:32-37이 반드시 페르시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밍은 느 9:34-35과 연결하여 느 9:36의 ‘중’을 페르시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M. Oeming, *윗글* (2006), 579-580, 584.

36) 이는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가 ‘중’이었다고 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스 9:9).

37) 에스라 9의 기도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여서 성전과 무너진 것을 세웠다고 한다(스 9:9[사역]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자비를 누리게 하였다).

38) 에스라 9장은 지금 잘못된 죄를 고백하는 기도이다. 반면, 느헤미야 9장은 현재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도이다. 고스웰은 에스라 9장 · 느헤미야 1장 · 느헤미야 9장의 기도 모두 페르시아 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Goswell, “The Attitude to the Persians in Ezra-Nehemiah”, *Trinity Journal* 32 (2011), 198-201. 고스웰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대해 충성하지 않은 강력한 증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 증거는 없지만 분명하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Goswell, *윗글* (2011), 201-202.

39) 버린은 기도하는 자가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내린 징벌을 없애달라는 간청을 하는 것은 신명기의 영향이라고 하며, 제2 성전 시대의 기도가 신명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르시아 왕을 몰아내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⁴⁰⁾

(4) 저항의 기도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기도문은 페르시아 제국을 시대 배경으로 한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느헤미야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두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에스라·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본다.⁴¹⁾ 하지만 맥콘빌(J. G. Mcconville)은 "페르시아에 대한 에스라·느헤미야의 태도는 우호적인 것과는 분명히 거리가 멀고 나의 의견에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어정쩡하다"라고 한다.⁴²⁾ 느헤미야 9장의 기도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논의는 다윗 왕조 재건에 관한 문제이다. 보다는 느헤미야 9:32-37이 현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달라는 요청은

미 여러 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라고 한다. Rodney A. Werline, *윳글* (1998), 1-2, 각주5; Rodney A. Werline, *윳글* (2006), xvii.

40) Boda, *윳글* (1999), 185. 보다는 비록 접촉점이 매우 작기는 하지만 느 9:37이 삼상8:11-17을 생각나게 한다고 한다. 삼상8:11-17이 37절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구절이 가진 근본적 차이가 있다. 삼상8:11-17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을 언급한 것이라면, 느 9:32-37절은 이방 왕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느 9:32에서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보다는 창47:18-19를 느 9:37과 연결 지으려 한다. 창 47:18-19에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가축을 팔고 이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된다고 한다. 두 본문에서는 왕의 종이 되는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다. 첫째, 창세기 47장에서 실제 바로의 종이 되는 자는 애굽 사람이다(창47:15). 둘째, 설령 가나안 사람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기근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종이 된 상황이다. 느헤미야 9장은 이방 왕에게 종이 된 상황이며 기근 때문에 종이 된 것과 상관이 없다.

41) 페르시아 왕이 유대 사람에게 내린 우호적 칙(명)령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 고레스 왕이 바벨론 명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의 귀환과 성전 건축, 성전 그릇 반환(스1:1-11) 허락, 2)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 재개 허락(스6:3-12), 3)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귀환과 성전에 필요한 것을 주게 하고 백성을 재판할 권한 부여(스7:13-26), 4)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 건축을 허락(1:5-9). 이런 호의적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42) J. G. Mcconville, "Ezra-Nehemiah and the Fulfillment of Prophecy", *VT* 36 (1986), 208. 맥콘빌은 에스라·느헤미야를 묶어서 말하고 있지만, 페르시아에 대한 에스라서의 태도와 느헤미야서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에스라 9장의 기도에서는 페르시아 왕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느헤미야 9장은 그렇지 않다.

있지만, 그 요청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⁴³⁾ 고스웰(G. Goswell)은 에스라·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⁴⁴⁾ 에스라·느헤미야의 밑바닥에 깔린 '하나님의 나라' 신학 때문에 에스라·느헤미야는 다윗 왕가의 통치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⁴⁵⁾ '하나님의 나라' 신학은 하나님을 통치자 곧 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왕이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 굳이 다윗 왕조의 재건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게 고스웰의 생각이다.⁴⁶⁾ 하지만 느헤미야 9장 5b-37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간주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윌리엄스(H. G. M. Williamson) 또한 느헤미야 9장에서는 메시아나 다윗 왕조를 기대하는 흔적이 없다고 하며, 왕이나 왕국보다 땅과 백성이 기도문의 주요 관심이라고 한다.⁴⁷⁾ 위에 언급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처럼 페르시아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분명하지만, 다윗 왕조 재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⁴⁸⁾ 펜샴은 역사적 기도의 "역사적 내용은 신학적 의도나 정치·종교적 상황에 응답"이라고 한다.⁴⁹⁾ 느헤미야 9장 5b-37절 역시 당시 정치·종교적 상황을 반영

43) Boda, *윗글* (1999), 185-186.

44) Goswell, *윗글* (2011), 192-203. 고스웰은 그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한다. 첫째 페르시아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원한 정치적 동기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둘째 페르시아 왕들을 잔인한 앗수르 왕들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셋째 에스라·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을 평가절하하려고 한다. 넷째 에스라·느헤미야에 있는 기도들은 페르시아 통치에 우호적이지 않다. 다섯째 총독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45) G. Goswell, "The Absence of a Davidic hope in Ezra-Nehemiah", *Trinity Journal* 33 (2012), 29-30. 느헤미야서에는 '중'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고스웰(29)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느헤미야, 모세 등을 중으로 표현하는 것은 에스라·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자신을 하나님의 중이라고 하지만(느1:6, 11), 페르시아 왕에게도 자신을 '중'이라고 한다(느2:5). 따라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개인)이 자신을 당신의 '중'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고스웰의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신학적 개념으로 에스라·느헤미야의 기저에 깔려 있고 그런 신학을 표현하기 위하여 '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중'이라는 표현을 이곳저곳에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46) Goswell, *윗글* (2012), 19-31.

47) Williamson, *윗글* (2010), 290.

48) 다윗 왕조 재건이 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암시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49) Fensham, *윗글* (1981), 38. 펜샴은 정치·종교와 관련된 당시 상황과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관련에 대해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윗 통치에 대한 희망을 명시할 수 없었던 것은 페르시아 권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 왕조 재건을 위한 시도나 희망을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 탄압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페르시아 왕을 반대하거나 유다 왕조 재건을 희망하는 표현을 자제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하지만 하나님 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종으로 전락한 신세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함이 있었다. 비록 다윗 왕조 재건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방의 왕에게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방을 염원하고 있다.⁵¹⁾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 9장 5b-37절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던 시대에 선포된 ‘저항의 기도’이다.⁵²⁾ 하지만 그 저항은 페르시아 왕들의 억압과 착취(37절)에서 벗어나고자 무장 투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의 왕으로 인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휼에 의지하는 저항이다.

4. 나오는 말

역사적 기도라는 관점에서 느헤미야 9장 5b-37절을 분석하였다. 역사적 기도라는 것은 구성 방식과 내용에 따른 분류 방식이다. 이것만으론 이 기도문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충분하지 않다. 버린은 “참회기도는 개인, 집단 혹은 집단

연급은 하지 않는다.

- 50) 보다는 몇몇 학자들이 느헤미야 9장 5b-37절 기도가 갑자기 끝을 맺고 있다고 하며, 명시적 간청으로 끝나야 할 마지막 부분이 제거되었다는 주장을 언급한다. Boda, *윗글* (1999), 76, 각주 4.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간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 51) 이런 염원은 한 개인보다는 유다 공동체의 염원으로 봐야 한다. Werline, *윗글* (1998), 2. 버린은 구약에 있는 기도 대부분은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52) 보다는 저항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느헤미야 9장은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공동체가 그들에게 전해졌던 경전 전통을 그들이 속한 시대의 필요 곧 고통 속에 있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Boda, *윗글* (1997), 179-180; *윗글* (1999), 196. 버린 역시 제2 성전 시대의 참회기도 작성자는 전해지던 경전 전통을 자신이 속해 있던 시대적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했다고 한다. Werline, *윗글* (1998), 6, 192-193.

을 대신한 개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 행위로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⁵³⁾ 이 정의에 따르면 에스라 9장과 느헤미야 1장의 기도는 참회 기도로 볼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 9장을 참회 기도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질베르(M. Gilbert)가 지적한 대로 느헤미야 9장은 죄 고백과 간청 기도로 이뤄져 있다.⁵⁴⁾ 기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종이 된 것(34-35절)은 조상들이 지은 죄(36절)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느헤미야 9장 5b-37절의 무게 중심은 죄 고백이 아니라 과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 것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청에 있다. 고통의 원인이 페르시아 지배에 있기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은 페르시아에 대한 정치적 독립이다. 이것은 느헤미야 9장 5b-37절을 저항의 기도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느헤미야 9장 5-37절과 다른 역사적 기도(시 78, 105, 106편 등)나 역사적 신앙고백(신 26장, 수 24장 등)과 비교하면, 느헤미야 9장의 의미와 역사적 기도에 관한 더 넓은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연구의 범위가 넓기에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신학적 해석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5. 참고문헌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59집 (2016 3월), 125-156.

배정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 연구”,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112-138.

Bautch, Richard J., *Developments in Genre between Post-Exilic Penitential*

53) Werline, 윗글 (1998), 2; 윗글 (2006), xv.

54) M. Gilbert, “La place de la loi dans la priere de Nehemie 9”, M. Carrez, J. Dore et P. Grelot (eds.), *De la torah au messie* (Paris: Cerf, 1981), 307-316.

Prayers and Psalms of Communal Lament (Leiden: Brill, 2003).

Boda, Mark J., "Praying the Tradition: The Origin and Use of Tradition in Nehemiah 9", *Tyndale Bulletin* 48 (1997), 179-182.

Boda, Mark J., *Praying the Tradition* (Berlin: de Gruyter, 1999).

Boda, Mark J., "Prayer as Rhetoric in the Book of Nehemiah", Isaac Kalimi(ed.), *New Perspectives on Ezra-Nehemiah*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267-287.

Curtius, A., "La mosaïque de l'histoire d'Israël: quelques considérations sur les allusions 'historiques' dans les Psaumes", D. Marguerat et A. Curtis (éds.), *Intertextualité: La bible en échos* (Genève: Labor et Fides, 2000), 13-29.

Fensham, F. C., "Neh 9 and Pss 105, 106, 135 and 136: Post-exilic historical Traditions in Poetic Form", *JNSL* 9 (1981), 35-51.

Fensham, F. C.,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Grand Rapids: Eerdmans, 1982).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Gärtner, J., *Die Geschichtspsalmen: Eine Studie zu den Psalmen 78, 105, 106, 135 und 136 als hermeneutische schlüsseltex-te im Psalter* (Tübingen: Mohr Siebeck, 2012).

Gilbert, M., "La place de la loi dans la priere de Nehemie 9", M. Carrez, J. Dore et P. Grelot (éds.), *De la torah au messie* (Paris: Cerf, 1981), 307-316.

Goswell, G., "The Attitude to the Persians in Ezra-Nehemiah", *Trinity Journal* 32 (2011), 191-203.

Goswell, G., "The Absence of a Davidic hope in Ezra-Nehemiah", *Trinity Journal* 33 (2012), 19-31.

- Levinson, B. M., *L'herméneutique de l'innovation: Canon et exégèse dans l'Israël biblique* (Bruxelles: Lessius, 2006).
- Macconville, J. G., "Ezra-Nehemiah and the Fulfillment of Prophecy", *VT* 36 (1986), 205-224.
- Mathias, D., *Die Geschichtstheologie der Geschichtssumarien in den Psalmen*, (Frankfurt: Lang, 1993).
- Oeming, M., "See, We Are Serving Today(Nehemiah 9:36): Nehemiah 9 as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Persian Period", O. Lipschits and M. Oeming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571-588.
- Ramond, S., *Leçons et les énigmes du passé: une exégèse intra-biblique des Psaumes* (Berlin: de Gruyter, 2014).
- Sarna, N., "Psalm 89: A Study in a Inner Biblical Exegesis", in: A. Altman (ed.), *Biblical and other Stud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29-46.
- Werline, Rodney A., "Defining Penitential Prayer", Mark J. Boda, Daniel K. Falk and Rodney A. Werline (eds.), *Seeking the Favor of God* vol. 1: The Origins of Penitential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Atlanta: SBL, 2006).
- Werline, Rodney A., *Penitential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The Development of a Religious Institution*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8).
- Williamson, H. G. M., *Ezra Nehemiah* (Waco: Word Books, 1985).
- Williamson, H. G. M., "Structure and Historiography in Nehemiah 9", *Studies in Persian Period History and Historiography* (Eugene, Wipf and Stock, 2010 reprinted; Mohr Siebeck, 2004), 282-293.
- Schuller, Eileen, "Penitential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a Research

Survey”, *Seeking The Favor of God volume 2: The Development of Penitential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Atlanta: SBL, 2007), .
Liebreich, Leon J., “The Impact of Nehemiah 9:5-37 on the Liturgy of the Synagogue”, *HUCA* 32 (1961), 227-237.

검색어

느헤미야

역사적 기도

공훈

레위 사람

The Historiography and The Prayer of Nehemiah 9

Sang-Hyuk WOO, D.theo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ae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e prayer of Nehemiah 9:5b-37. In general, the prayer is known as a penitential prayer. The penitential prayer means a prayer that confesses sin. However, the key to this prayer is not repentance, but pleading God for mercy. This study approach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prayer. Historical prayer refers to a prayer composed of specific historical events and times experienced by the people of Israel. Nehemiah 9:5b-37 contains the history of Israel which includes the Abrahamic covenant and the Exodus, the wilderness journey, the conquest of Canaan, and the Persian era after the captivity. These historical events are the module which is used as the building blocks of this prayer. Nehemiah 9:5b-37 interprets the above-mentioned history of Israel in terms of the confession of sin and the compassion of God. In particular, mercy appears not only to interpret past history but also as a hope to solve their suffering now. This study proceed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 briefly

www.kci.go.kr

introduced the trend of the research and the approach taken by this paper. Then, I looked at how Nehemiah 9:5b-37 is constructed. Thirdly, I examined the role of the land in supporting the coherence and cohesion of Nehemiah 9:5b-37. Fourth, I presented the working principles of their confession of sins and the compassion of God presented as theological premises. This prayer has five compassion cycles. Finally,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e prayer of the Levites is a prayer of resistance that reflects the desire to escape the rule of the Persian empire after the exile.

Keywords

Nehemiah

historical prayer

God's mercy

the Levites

- 투고일: 2018년 4월 9일
- 심사일: 2018년 4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4월 28일

www.kci.go.kr